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천국일꾼은 다음 세대의 주역



이번 주말에 있을 청년1부·청년2부·사랑부·예배다부(성인반) 수련회를 끝으로 2009년도 여름계절학교가 끝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친 학생들의 삶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시 16:1). 우리 교회는 연령에 따라 총 23개의 교회학교 부서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여 매 주일 또는 토요일에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벧전 2:2). 특히 매년 두 번에 걸쳐 선발된 충헌장학생들을 볼 때마다 십자가로 충만한 민족과 세계를 꿈꾸게 합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천국일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교회학교로 오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벧후 3:18).

*2009년 후반기 충헌장학생 명단은 본지 4면 참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김성관 위임목사

의 보혈만이 부흥의 원동력이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하였다. 고난 받는 메시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사야 53장에 이어서 이사야 54장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참 모습을 기록하였다. 주님의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떠한가?

찬송이 있다 찬송이 있다. "영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낳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사 54:1). 이것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극한 외로움

속에서의 찬송이다. 이 찬송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 찬송의 근거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복음을 전하다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를 맞은 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송하였던 바울과 실라가 되어야 한다(행 16:22~25).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찬송의 제목이어야 한다(롬 15:9~10).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자라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자라난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까지 말고 널리 퍼뜨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사 54:2~3). 예루살렘 백성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황폐한 성읍에서부터 시작된 찬송은 교회를 자라게 한다. 초대 교회는 슬한 필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초대 교회는 부흥하였다(행 2:46~47). 박해로 흩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은 복음전도의 기회가 되었다(행 8:14~15). 사울은 변하여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자랐다(행 11:25~26).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는 자라지 못한다. 오직 은총으로 자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다음 호에 계속)

THE SACRIFICE OF ABRAHAM

"Now it came about after these things, that God tested Abraham, and said to him, 'Abraham!'" And he said, "Here I am." "He said, "Take now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and offer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of which I will tell you." ... (14)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s it is said to this day, "In the mount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Genesis 22:1-14)

Abraham is the father of the faithful. Galatians 3:29 says, "And if you belong to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descendants, heirs according to promise." Abraham is related, by the blood of Jesus, to all true believers. His life reflected the workings of great faith. When he was asked by God to sacrifice his beloved son, Isaac, he didn't stagger or hesitate. He didn't spend time contemplating the request or consulting others. He just heard God's message and was fully determined to obey. Today's Bible passage tells us that he "rose early in the morning...split wood for the burnt offering" (Gen. 22:3). Abraham obeyed immediately. He trusted God completely and believed, no matter what the detriment to him, God knows best. Let's look at several key elements mentioned in today's Bible passages that highlight the power of faith.

First, look at Abraham's sacrifice. God asked Abraham, "Take now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Isaac, and go to the land of Moriah, and offer him there as a burnt offering on one of the mountains of which I will tell you" (Gen. 22:2). Isaac was the center of Abraham's life. All his hopes, desires, and affections revolved around his son. Sacrificing Isaac was like letting-go of everything and having absolutely nothing left, but God. God is enough! He is the Creator. Abraham could not compare his son to God because God is everything. God gave up His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in which all His affections were centered. We can never understand His great sacrifice in giving His Son, but we can know that God gave His all. John 3:16 say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aith in God is all anyone needs.

Second, look at Isaac's submission. Today's Bible verses tell us, "Abraham took the wood of the burnt offering and laid it on Isaac his son, and he took in his hand the fire and the knife. So the two of them walked on together...Then they came 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 and Abraham built the altar there and arranged the wood, and bound his son Isaac and laid him on the altar, on top of the wood. Abraham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 (Gen. 22:6,9-10). Abraham and Isaac walked together. In the very real sense this was true of Jesus Christ and His Father. In making atonement for sin, God and His Son walked together. The purpose of the Father and the Son was one. Like the Lord Jesus Christ, Isaac submitted. Abraham was about one hundred and twenty-five years old, and Isaac around twenty-five years old. Isaac could have easily escaped from his father, but he didn't. Instead, he laid down his life for his father's will to be done. Not many can truly imagine the burden in Abraham's eyes as he gazed upon his son while placing the wood around him. As he stood over his son, Abraham relented to his cross of sacrifice. What a picture

of the only begotten of God with the burden of our iniquities laid upon Him by His loving Father. Abraham and Isaac practiced their faith.

Third, look at the fire and knife. Abraham "took in his hand the fire and the knife" (Gen. 22:6). These elements are awfully solemn. In Old Testament times, sacrifices required fire. Hebrews 12:29 says,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God is holy. Holiness and fire are intertwined. The knife is a reference of judgment. Zechariah 13:7 says, "Awake, O sword, against My Shepherd, And against the man, My Associate," Declares the LORD of hosts. 'Strike the Shepherd that the sheep may be scattered; And I will turn My hand against the little ones.' " The knife was quivering in the air when Jesus cried, " 'ELI, ELI, LAMA SABACHTHANI?' that is,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 Sadly, these days' people are ready to forget that every sacrifice to God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fire of holiness, the knife of judgment, and dying. Our souls must tread softly to the altar of God. Abraham built the altar on which his son was placed. His work was solemn and his soul was contrite. God took His Son as the Lamb to be slain. The angels in heaven cry out,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might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Rev. 5:12).

Lastly, look at the act of substitution. God didn't take Abraham's son. Today's Bible verses tell us, "Then Abraham raised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behind him a ram caught in the thicket by his horns; and Abraham went and took the ram and offered him up for a burnt offering in the place of his son" (Gen. 22:13). God had prepared something else. The scene of Mt. Moriah is like Mt. Calvary. The result could scarcely have been perfect without a substitution. The ram became the burnt offering and Isaac became free. Observe this sacrifice that was provided by God in view of Jesus before us, not as the Son now, but as a substitute for our condemnation. Man found a cross for Christ, but it was God who found the ransom.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e place where he built the altar to sacrifice his son "Yahweh," meaning "The LORD Will Provide" (Gen. 22:14). Romans 8:32 says,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over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Ask Isaac, as he gazed at the ram, whether or not he believed in substitution. Isaac felt like John felt when he saw Jesus,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My dear friend, we need the same faith as Abraham. God loves you and has taken care of everything that concerns you. Like Abraham, you need to place God first in your life, above everyone and everything else. Please let nothing be dearer to your heart than the Lord Jesus Christ. Amen. 

다음 주일 설교

아브라함의 희생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1~14)



김성관 목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라디아서 3:29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모든 참 신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의 삶은 신실한 믿음의 자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창 22:3).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임을 알았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을 통해 믿음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번제물을 바라보았다

첫째, 아브라함의 희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2).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애정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외에 전혀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감히 자신의 아들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실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희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16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뿐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둘째, 이삭의 순종을 보십시오. 오늘의 성경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창 22:6,9-10).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일백 이십 오세쯤 이었고 이삭은 이십 오세쯤이었습니다.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의 아버지로 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에 맡겼습니다. 번제 나무를 쌓는 동안 아들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에서 무거운 고뇌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을 지켜보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생의 심자기를 감내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지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불과 칼을 보았다

셋째, 불과 칼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창 22:6). 이러한 요인들은 아주 엄숙함을 자아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불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2:29는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함과 불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13:7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울부짖었을 때 칼은 하늘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슬프게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희생을 거룩함의 불, 심판의 칼, 죽음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바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움직였고 그의 영혼은 죄를 뉘우치며 배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임 당할 이런 양으로 취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크게 외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계 5:12).

하나님의 설리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물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창 22:13). 하나님은 이미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리아산의 광경은 마치 갈보리산과 흡사합니다. 다른 제물이 없었다면 결말이 이처럼 완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숫양은 번제물이 되었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이 희생을 하나님은 아들이 아닌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바라보십시오. 인간은 그리스도를 매달 심자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량자를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희생제단을 쌓았던 곳을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습니다(창 22:14). 로마서 8:32는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숫양을 보았을 때 자신을 대체할 그 무엇이 있었음을 믿었는지 이삭에게 물어 보십시오. 이삭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느낀 것과 동일한 것을 느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요 1:2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그 누구,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

마가복을 강해 89

군병들에게
조종을 당하시다
(15:16-20)

예수님의 사행을 결정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군병들에게 인계했다. 로마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라운'으로 데리고 갔다(막 15:16). 이곳은 로마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업무를 보던 관청이었다. 당시 총독과 로마군병들은 건강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대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속속 모여 들고 있었고 자칫 어떤 일로 민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총독은 원래 주둔지인 가이사라에서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때 로마의 관습은 정치적 안정과 질서 유지였고,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관심은 골치덩어리의 제재였다. 결국 로마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누구, 무엇과도 하나가 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은가?

로마군병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아주 심한 조종을 당하셨다. 군병들은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과 가시관을 씌웠다(막 15:17). 그러면서 그들은 인사하며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며 평안할지이다"(막 15:18). 또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도 왕께 절하는 흉내를 냈다(막 15:19). 이와 같이 로마군병들은 감히 왕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희롱하는 행동이었다.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막 15:20). 예수님께 거짓으로 물어 절하는 로마군병들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언급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하고 때린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침을 뱉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시다. 건디기 힘든 모욕과 조종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이나 말쑼이 없으셨다. 이처럼 로마군병들에게 매 없이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무능력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자가 아니라 무능력할지라도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믿음의 길로 이끄신다(찬 212장).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모든 일을 맡겼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심할지라도 오직 순종 뿐이었다(벧전 2:21, 23).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행하셨다(막 5:39).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 12:17). 자신이 가진 능력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잘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존경과 명예를 얻을 수 있겠지만 참성도가 될 수는 없다.

참 성도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은 이 길을 걸으셨으며 결국에는 승리하셨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백학임을 받은 진심한 자들도 이기리라"(계 17:14). 로마군병들은 예수님을 조종하였지만 예수님만이 진실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계 19:16).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자. 십자가의 은총과 능력을 모른 채 예수님을 조종하는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더욱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자.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흠뻑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아멘.

* 매주 함양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09년 하반기 중현장학생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천국인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대학원생 (16명)

강은미	강지영	김동현	김희영	백수현	양윤영	유미경	윤은희
이경진	이미영	이복희	이우주	이재원	장 작	최예슬	최지혜

대학생 (97명)

강문구	강민희	고혁준	고혜진	고홍섭	권도형	권마리슬	김다령
김대은	김대혁	김동석	김민정	김보정	김사무엘	김성은	김성주
김소담	김예스터	김연희	김예진	김원희	김우섭	김유림	김윤경
김윤영	김지선	김지수	김지혜	김진희	김태훈	김현정	김현정
김형규	김홍미	김효남	남지혜	노하은	문상효	박다솜	박미연
박수경	박은지	박정윤	박주영	박진수	백민지	백지수	성지영
신하영	심재원	안지영	염새봄	예지희	왕현정	유종훈	윤수정
윤혜리	이다정	이동수	이동훈	이상용	이세익	이송이	이슬기
이신애	이윤진	이은미	이은혜	이정덕	이정희	이지운	이지혜
이조환	이화영	임성화	임진아	잔드라	장유선	전다인	전숙현
정나혜	정다예	정성국	정성미	정예은	정유진	정준성	조상미
차병철	천애나	추수환	하지명	한정훈	허 람	현건희	홍은표
황하진							

고등학생 (90명)

강성민	강하은	고민우	고영규	공예령	공진규	곽정원	김민석
김소라	김유웅	김정연	김정원A	김정원B	김지원A	김지원B	김지윤
김지은	김하은A	김하은B	김한나	김현하	김현철	남기훈	남명훈
남소리	노주원	문영광	문정훈	민사라	민준하	박경주	박서정
박연경	박요섭	박지웅	박재원	박푸름	손연수	송지영	양성윤
양정모	양찬미	여성민	오동훈	원종건	유지현	이경아	이소연
이예주	이예현	이요한	이원진	이재영	이정훈	이찬용	이현주
이혜린	이화진	임민선	임지수	임진묵	장성훈	장준호	전동성
전사무엘	전 진	전하예	정수민	정승우	정예림	정현종	조수빈
조유준	조진희	조하은	조현수	지현덕	최미영	최예진	최은빈
최재필	최현호	한상현	한이레	한준식	한태희	홍덕용	홍진호
황금산	황서현						

총 203명

중현장학생 선발자 명성운(대학원생·대학생 선발자에 한함)

일시 : 2009년 8월 14일(금), 15:00~18:00

장소 : 베다니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장소로 가서

3개월 낯익은 영혼훈련, 팀훈련, 기도회, 언어훈련, 선교기도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셨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이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파송을 받고 사역자로 출발하였다. 여러 가지 어려움 여건 속에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자신을 내려놓고, 예비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장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시골마을, 학교, 수상마을, 무슬림 주변 마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호의적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 끝까지 듣고 있었다. 특히 시골 마을은 집집마다 개가 많아 잔도하기가 어려웠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사역 3월째 되는 날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는 학교 정문 앞에서 60여 명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현지어로 부를 때 7~8명의 학생들이 전도지도 보지 않고 305장과 563장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우리 팀원들은 놀랐다. 그 학생들은 특실한 크리스찬들이었다. 우리 교회에서 부린 씨앗들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난다. 선교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은 열매 맺게하여 주셨다. 이번 선교는 준비과정부터 사역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신 지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났다. 주께서 함께 하시므로 만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었다. 서투른 발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정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사라의 주님, 사역 중에 만난 영혼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믿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심희만(민주집사, 12교구)

복음의 씨

매해 가는 선교지만 이번 선교는 정말 힘들었다. 영성심사 때 한 집사님이 탈락하셔서 마음이 아팠다. 그것도 처음으로 선교를 결심하고 훈련 받던 집사님이셔서 더욱더 마음이 아파 팀원 모두는 힘이 빠졌다. 그러나 팀원들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 선교를 떠날 수 있었다. "시위와 열악한 도로사정과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안고 사역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험한 낭떠러지 길을 넘을 때에도 주님은 편을 주셨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이롭고 안전한길을 느꼈다. 만나는 영혼들마다 초콜렛통한 만큼으로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즐겁게 찬양하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죄악 투성이인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자들을 통해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학교사역을 할 때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감당으로 모아주셨다.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보내 주셨음을 깨달았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속수에서는 선공기로 더위를 이겨야했다. 그러나 사역할 때에는 무더위도 잊어버리고 모든 팀원이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둘째 날 우산을 쓰고 전도할 때에 어디서 "아름다!" 하고 불려서 깜짝 놀라 돌아보니 현지인이었다. 비 맞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공장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근로자로 8년 동안 있다가 이곳에 와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한국에서 교회에 조금 다녔다고 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 40명의 직원에게도 잘 전하였다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저 맑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들을 누가 돌보아 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무거웠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 따라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앗들이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7박 8일의 사역을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녁에는 폭우로, 낮에는 가랑비와 구름 기운으로 인도하시고 무한한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김태권(집사, 17교구)

그 나라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선별된 성도들이나 선교를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교에 무관심 하였던 나. 그러나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선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도로 준비하던 중 한 집사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선교를 가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매년 선교를 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곳의 영혼들을 찾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내 모든 인술로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사람을 마음껏 외쳤다. 그러던 중 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선교를 믿음으로 결정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가게 하신 그곳.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결정하여 보내신 그 나라 그 땅의 하나님께 택한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 할 것이 연결하는. 그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자절로 나오는 감격의 눈물 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주심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또 '나' 아닌 다른 택한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구원받은 기쁨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세찬 바람과 황사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귀한 영혼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선교활동은 끝났지만 지금까지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주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로 후원할 것이다.

정희숙(집사, 11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20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27일(월) - 8월 4일(화)	9교구 3팀	남용승
7월 27일(월) - 8월 4일(화)	16교구 1팀	유정숙
7월 27일(월) - 8월 4일(화)	14교구 2팀	신명환
7월 27일(월) - 8월 4일(화)	17교구 3팀	이선홍
7월 28일(화) - 8월 4일(화)	청년1부 2팀	김종녀
7월 28일(화) - 8월 5일(수)	18교구 2팀	안연식
7월 28일(화) - 8월 5일(수)	22교구 2팀	양병진
7월 29일(수) - 8월 6일(목)	대학부 6팀	홍금성
7월 29일(수) - 8월 6일(목)	대학부 7팀	이진동
7월 29일(수) - 8월 6일(목)	13교구 2팀	이상배
7월 29일(수) - 8월 6일(목)	9교구 4팀	조영구
7월 30일(목) - 8월 7일(금)	10교구 2팀	송문식
7월 30일(목) - 8월 7일(금)	5교구 2팀	김원주
7월 31일(금) - 8월 7일(금)	6교구 3팀	김현철
7월 31일(금) - 8월 7일(금)	4교구 2팀	문영규
7월 31일(금) - 8월 8일(토)	16교구 3팀	김병화
7월 31일(금) - 8월 8일(토)	11교구 3팀	박선철
7월 31일(금) - 8월 8일(토)	충동2부 5팀	윤병식
8월 3일(일) - 8월 8일(토)	충동1부 3팀	한준봉
8월 3일(일) - 8월 8일(토)	고동부 3팀	이재호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5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3일(월) - 8월 12일(수)	21교구 1팀	임연수
8월 4일(화) - 8월 11일(화)	충동2부 4팀	남용철
8월 4일(화) - 8월 11일(화)	충동2부 5팀	함윤수
8월 4일(화) - 8월 12일(수)	고동부 4팀	홍순길
8월 4일(화) - 8월 12일(수)	대학부 9팀	문경숙
8월 4일(화) - 8월 12일(수)	23교구 1팀	한종원
8월 4일(화) - 8월 12일(수)	24교구 3팀	임광진
8월 4일(화) - 8월 12일(수)	24교구 4팀	정재영
8월 5일(수) - 8월 13일(목)	7교구 3팀	박석산
8월 5일(수) - 8월 13일(목)	4교구 3팀	김운환
8월 6일(목) - 8월 14일(금)	8교구 2팀	이영환
8월 6일(목) - 8월 14일(금)	11교구 2팀	김동휘
8월 6일(목) - 8월 14일(금)	23교구 2팀	문장진
8월 7일(금) - 8월 15일(토)	15교구 3팀	박우현
8월 8일(토) - 8월 14일(금)	청년1부 3팀	나영실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0일(월) - 8월 15일(토)	고동부 5팀	박노익
8월 10일(월) - 8월 19일(수)	21교구 2팀	박명근
8월 10일(월) - 8월 19일(수)	18교구 3팀	김경환
8월 11일(화) - 8월 19일(수)	10교구 3팀	최영민
8월 14일(금) - 8월 21일(금)	7교구 2팀	이연범

“아아, 아아.
영영, 영영.”



21개월 된 정화는 영아부 믿음4반입니다. 정화는 “나는 나는 충현교회 영아부 아기~”찬양에 맞춰 손가락으로 두 볼을 찌르며 울릉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정화가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두 번째지요. 평소 1부예배만 드렸던 정화는 아주 많은 친구와의 만남에 신이 났습니다. 엄마들뿐 아니라 친구 아빠의 참석에도 흥이 났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는 주제에 따라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도 힘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양육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강시간은 천국을 향한, 가정에서 실천할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내용으로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는 아이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형극은 주인공 ‘덜렁이’를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영아부 선생님

두 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하신다니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신 간식을 먹고, 전도도우로 사용할 마이크를 두 루마리 휴대심을 이용하여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더욱이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평소 쓰지 않는 옷, 장난감, 책과 인형 등 100여 가지 이상 기꺼이 내놓은 손길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비록 물건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정화도 강아지 인형, 원피스 옷, 책 두 가지를 받았으며, 이로써 모든 일과를 마쳤습니다.

영아부 아기에게 만나질 동안의 시간이 길지만, 앓을까 생각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각각의 시간이 너무도 알려져서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갔습니다. 정화도 아쉬웠는지 친구들이 집에 다 돌아갈 때까지 탁아부실에서 더 있다가 왔지요. 정화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아아, 아아.”라고 합니다. 그 곁에서 우는 그림을 보며 “엄영, 엄영”하고 말합니다. 이런 정화가 십자가의 참사랑을 알고,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신진영(박정화의 엄마, 영아부)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유아부에 올라와 처음 맞는 여름성경학교, 영아부 때와는 또 다른 아기의 성장과 믿음의 씨앗을 바라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율동과 찬양을 신나고 즐겁게 따라하고, 말을 들을 때는 전도사님 앞에서 집중하며 듣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신 말씀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부모 특강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부족했던 나의 삶을 철저한 회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잠들기 전 엄마와 예원이가 침대 밑에 무릎 꿇고 꼭 기도하기로요.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요.”

김지선(예원의 엄마, 유아부)

그를 좋았던 것은...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생각나는 말씀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예요. 성경학교에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았던 찬양은 ‘내가 만약 나비라면’이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시간은 성경 암송 시간이었어요.

고운서(유치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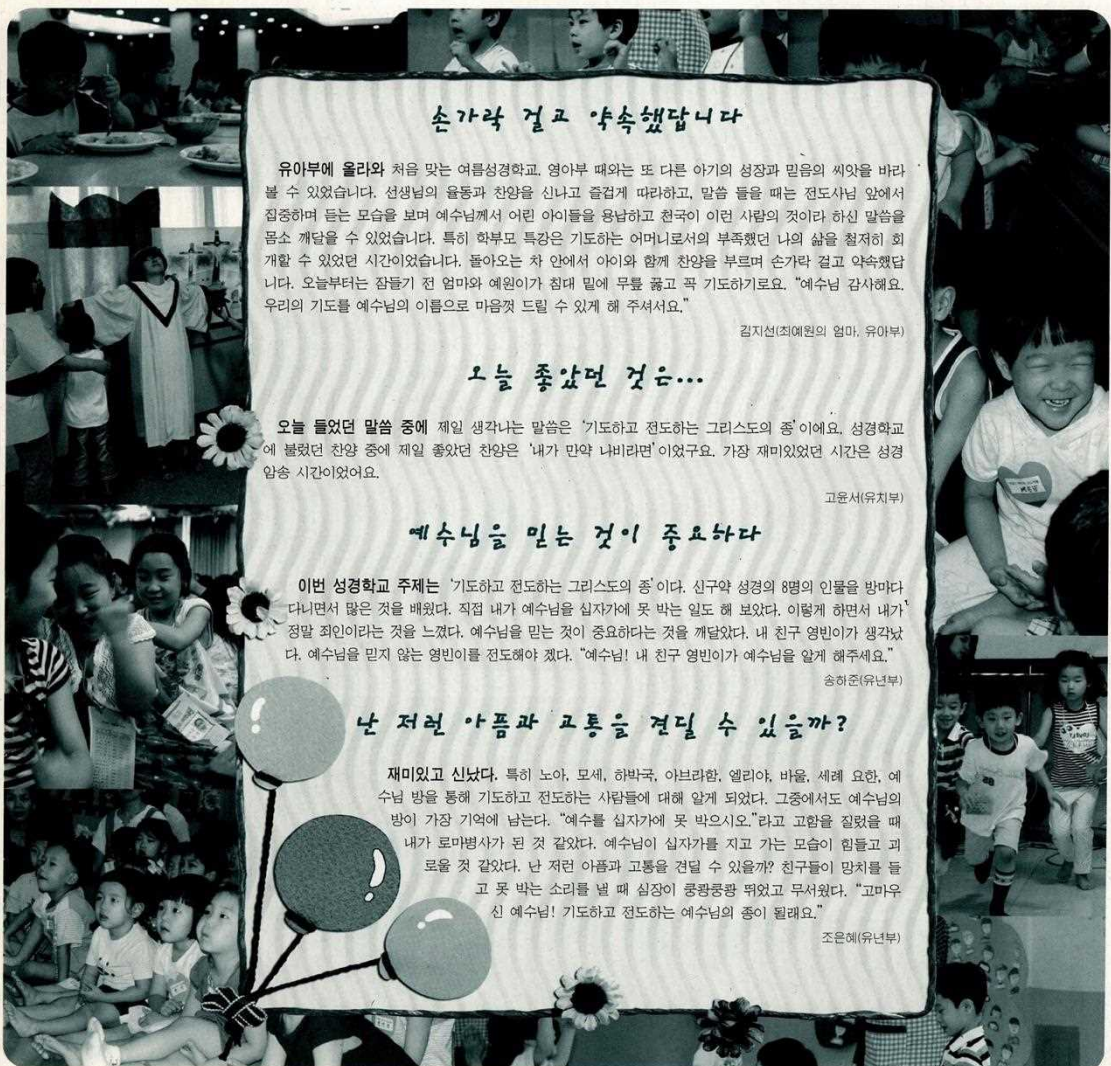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친구와 성경의 8명의 인물을 받다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직접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해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친구 영빈이가 생각났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빈이를 전도해야겠다. “예수님! 내 친구 영빈이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송하준(유년부)

난 저런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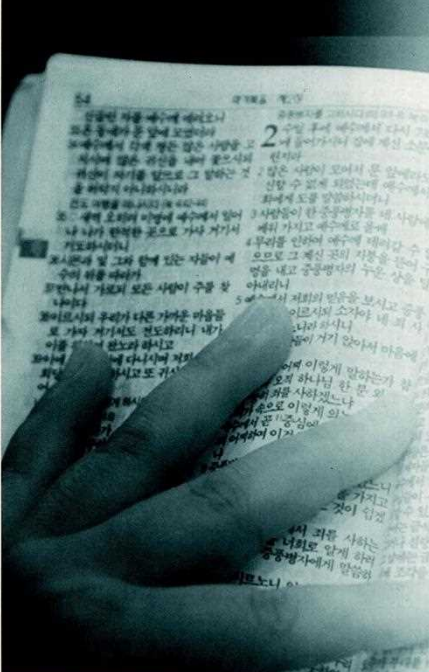
재미있고 신났다. 특히 노아, 모세, 하박국, 아브라함, 엘리야, 바울, 세례 요한, 예수님 방을 통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예수님의 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고향을 질렀을 때 내가 로마병사가 된 것 같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았다. 난 저런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 친구들이 망치를 들고 못 박는 소리를 낼 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무서웠다. “고미우신 예수님! 기도하고 전도하는 예수님의 종이 될래요.”

조은혜(유년부)



새가족양육부 7월 수료자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살게 하소서



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사탄의 유혹이 많은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흐려져 “항상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을 떠나는 죄를 절대 범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항상 임하시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의 뜻 이루어소서, 주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내 안에 내가 없고 내가 하려는 마음도 없이 오직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살게 하소서.” (윤신미)

②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죄인인 것과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기에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간구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기겠습니다. (부미자)

③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완전한 하나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처음 느꼈던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지호)

④ 도통 모르겠던 성경말씀을 교육을 통해 알게 된 점이 뜻 깊습니다. 전연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 삶을 부유하게 해 주실뿐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자녀 됨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늘 기도와 간구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싶습니다. (심주인)

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져 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강병선)

⑥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며 그러하기에 모든 인간은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욕심과 욕망 그리고 교만했던 나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녀로 살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외롭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결로로 다가가겠습니다. (남명희)

⑦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동생과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길을 잃어 방황할 때마다 바른 길로 오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손순환)

⑧ 예전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어 왔는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편안해 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언교회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세례를 받게 해 주시고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배영희)

⑨ 주의 사랑과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사랑,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과 사랑을 계속 간직하며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현희)

⑩ 미숙한 삶을 사는 나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은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위를 보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게 하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찾아오는 마음의 평온을 느낍니다. (김정숙)



청지기칼럼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옆드려 기도 하오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였고 교회활동도 열심히 하였으나 두 세계 중 세상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열심히 살아간 중 뜻하지 않은 일을 겪으며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시어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의지 할 분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하여 새벽 기도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가 만나이다 나의 믿을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막 9:24).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옆드려 기도 하오니.” 주님은 내 맘에 평화를 주시고 온전히 내려놓음을 통하여 새 소망과 순종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때부터 주님 은혜만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그러나 매 순간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닭이 곧 두 번 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막 14:72).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를 소망하나 어느 순간 앞서 있는 자신을 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혹여나 주님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에 충만하지는 않나 두렵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 된 교회를 섬기며 맡겨 주신 직분을 통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나기를 매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죄인이 주님 크신 은혜로 참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되 더욱 십자가만 붙들며, 십자가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를 함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막 15:39).



이정호

(인수집사, 소년부부장)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36	정충헌	2	청년1부 한만교(24)
1237	곽경자	1	장년3부 조은비(1)
1238	조경선	14	장년3부
1239	정연민	1	장년2부 김순곤(6)
1240	김정일	1	청년2부 허형철(24)
1241	정승철	1	청년2부 허형철(24)
1242	이승환	17	대학부 김성혜(12)
1243	박 철	22	청년2부 김성혜(12)
1244	장윤록	22	청년2부 김성혜(12)
1245	이준중	2	대학부
1246	남혜자	5	장년2부
1247	최영남	12	장년2부 김영선(13)
1248	김정일	12	장년2부 김영선(13)
1249	어커	25	외선부 장응숙(21)
1250	박이	25	외선부 장응숙(21)

※ 추후교회와 한 가족이 회기를 위하여는 본문
본문 203호 새가족등록식별 오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모임

1. 집사회 월요기도회

일시 :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 갈릴리홀 대상 : 안수집사 전원 필참

별 세

1. 주의택 성도(주은숙 집사의 부친, 24교구 동천1구역) / 1일 별세, 3일 장례
2. 이순옥 타교성도(이영자 성도의 모친, 4교구 개포2구역) / 4일 별세, 6일 장례
3. 정위원 타교권사(식숙덕 집사의 모친·위철홍 집사 부친) / 4일 별세, 6일 장례

결혼

1. 김봉기 군(김병직 성도·서인정 성도의 아들, 13교구)과 임명옥 양(임한일 씨·고영란씨의 딸, 14교구) / 15일(토) 15:00, 강남웨딩홀(구 마샬웨딩프라자) 3층 그레이스홀

2009년 여름수련회

부 서	일 시	장 소
청년1부	8월 14일(금)~15일(토)	충현기도원
청년2부	8월 15일(토)	제2교육관 2층
사랑부	8월 15일(토)	복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8월 15일(토) *성인반	제2교육관 1층

총력 교회주변 전도

일 시 : 여전도회 19일(수) 구역장 영성훈련 후 남전도회 22일(토) 14:00

장 소 : 여천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장소

남전도회 1지회-301호 2지회-307호 3지회-401호 4지회-407호

선교언어 훈련

장 소 : 대극장과 40

장 소 : 세교역은 45호(대성동) 51호(삼포대) 52호(우곡대) 53호(대포대)
510호(베트남)

날짜	시간	형식	장소	세례, 개종, 입교	장소	유아세례식	장소
8월 8일 (요일)	12:01 15:00-15:30	집중 개요 (윤찬현 목사)	교육관 300호	세례장 (최희준 목사)	교육관 304호		
	22:01 16:00-16:40	기독문 (최희준 목사)	교육관 300호	교회를 (박영준 목사)	교육관 304호		
8월 16일 (다음 주일)	12:01 15:00-15:30	개요 및 개요 (강현철 목사)	교육관 300호	구원을 (이영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식 (오주 3시간)	교육관 301호
	22:01 16:00-16:40	문답	교구별 문답	문답	교구별 문답		
8월 23일 (주일)		전라경배	성인 학습 세례식(장영재, 분광)	오주 3시간까지 입교자	유아 세례식	(오주 3시간, 강일호)	유아 세례식

충현기도원 촉탁직원 모집

1. 모집부문 지도원 관리직(60세 미만 남자 세례교인)·식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60세 미만 여자 세례교인)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추천서(타교인)
3. 서로평문장 간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031-766-5425

새벽기도회 (8/10~8/16)

	10 (월)	11 (화)	12 (수)	13 (목)	14 (금)	15 (토)	16 (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정관/박길준	최건철/함옥수	정민권/이양선	박준식/이광진	이재현/임병준	안일찬/강영미	하종철/구지우
설교 본문	막 15:33-41	눅 13:1-9	눅 14:1-11	눅 14:12-21	말 1:1-5	말 1:6-14	말 2:1-9

예배 담당 (8/12~8/16)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8/12	수요일 수요일	만민아의 회개(눅 15:25-32) 장 훈 목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골 1:21-3) 김윤환 목사	강영주 송제호	이연숙 최금숙	나 주를 멀리 떠났다(소산나 찬양대) 이 몸은 주님 무언가(최소나 찬양대)
8/14	금요일	창제후 목사	윤요한		예루살렘 찬양대 / 중등부 찬양 / 소프라노 정정희
	주일 I	아브라함의 회개(창 22:1-14) 이재현 목사	이순식	김계인	(예배 전 찬양)
	주일 II	아브라함의 회개(창 22:1-14) 최강진 목사	강현철		만민이 내게 있으리라 / 소프라노 장순영(합창팀 찬양대 솔리스트)
	주일 III	아브라함의 회개(창 22:1-14) 김강철 목사	장 준	권병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 풀트 박학우(합창팀 아코디스트)
	주일 IV	아브라함의 회개(창 22:1-14) 강성진 목사	박준식	지성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 소프라노 안선희(중등부 찬양대 지휘)
	주일 V	아브라함의 회개(창 22:1-14) 김근영 목사	안길진	전학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바이올린 김재희(합창팀 아코디스트)
	주일잔류	좋은 사마리아인(눅 10:30-35) 김성락 목사	최진철	전성우	현도현 연주대 / 12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참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찬양회	저녁 7:30	본 당
세 번 기 도 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70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화요일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일철야	저녁 11:00	금요일찬양집회 후 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청년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8호
스 말 부	오후 12:15	길 길빌 리
스 말 부	오후 12:15	복지관 지하1층
예배마루	오전 9:00(학생) 오후 1:00(장년)	제2교육관 1층
타 이 부	(학) 오전 8:30~오후 6:00 (교) 오전 7:30~오후 5:00	신교관 1층
세계적약육부	오후 12:10	배 다 니 룸
국제대인성교육부	오전 11:10	아 면 룸
영유아중독성교육	오전 8:30~오후 4:30	제1교육관 1층
출연여미인교	주3교로	제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3교로	충북복지관

8월

총현 기도의 창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 ① **중생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 16:24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 의 종들 1:10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받은 자들의 영광을 감당**(약하 2:9)하게 하소서,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포로(고전 2:2)로써 사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헌되**며 부수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름과 한 못됨 16:25이 되게 하시고 우리 회교를 주님의 복음 16:18로써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매박과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입권이 양성(딤후 1:4)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된 1:13과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거선**(골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골 1:12)로 믿게 하시고, 예수말씀 찬양대(수 2:36)를 통하여 극요한장미회 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중생의 재단유지·돈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 하여 구원과, 현재 주신 안으로 믿고 남글시절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⑨ **피떡자녀** 모든 혼란된 동생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길(벧전 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부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illegible]